전쟁, 물가 공포 뒤로하고 다시 사상최고치 경신한 증시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전쟁 영향 대부분 되돌림, S&P500, NASDAQ 사상최고치 경신

- 미 증시는 DOW -0.15%, S&P500 +0.80%, NASDAQ +1.59% 혼조. 빅테크를 필두로 기술주 강세 뚜렷,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도 강세
- VIX 18.2(-12.0%) 전쟁 이전 수준 회복 및 S&P500, NASDAQ의 고점 갱신 등은 시장이 전쟁 공포를 해소중인 국면으로 해석. CNN 공포탐욕지수도 56pt로 개선되며 탐욕 구간 진입
- 달러인덱스 98.0,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 UBS는 유가충격 등 변동성 상황에서 금, 엔, 유로, 국채 등 자산이 급락장에서 손실 상쇄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 미 달러가 가장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겠으나, 분쟁 초기 달러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보다 포지션 청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미-이란 2차 협상 기대 지속, 국제유가는 급락 후 보합세

- 미 백악관은 앞서 언론 보도된 휴전기간 연장 공식 요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다만, 이란과의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중이며, 2차 대면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2주 휴전체제는 21일 만료 예정
- 베센트 재무장관은 유가 대응책으로 내놓았던 러시아·이란산 원유의 한시적 판매 승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언급. 이란과 협상 진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6/20~9/20 중 휘발유 $3 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발언. 미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전 갤런당 $2.8~$2.9 수준에서 최근 기준 $4.11 기록
- 한편, 로이터는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내 오만 측 항로쪽 개방을 검토중이라 보도. 이란의 자국 해협 통제는 유지되나 오만측 수역은 오만이 별도로 관리하는 체제로, 해상물류 일부 정상화 가능성에 통과여부 귀추 주목

인플레 우려 반영하며 국채금리 상승 10Y +2.3bp, 2Y +1.0bp

- 3월 미 수입물가 MoM +0.8%, 2%대 상승을 우려한 컨센 크게 하회. 연료수입물가 +2.9%, 석유·석유제품 수입가격 +9.4% 등 유가상승 여파 뚜렷. 3월 미 수출물가 MoM +1.6%
- 연준 베이지북은 전반적 성장세가 확인되었으나, 전쟁 불확실성에 의해 기업 관망세가 확산되는 흐름 관찰. 에너지·연료비의 가파른 상승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에 집중, 주요 결원 보충 중심으로 진행 양상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임기 만료 예정인 파월 연준의장의 잔류 가능성에 대해 사임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는 강경 입장. 21일 청문회 예정인 케빈 워시 인준 문제도 염두한 행보로 해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ASML	ASML	-2.4%	1Q26 실적발표. 호실적 및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도 주가 하락. 하락 이유는 ① 1분기 중국향 매출 비중 급감(전분기 36%→19%)과 ② 컨센(€9.1B) 하회한 2분기 순매출 가이던스(€8.4B~€9.0B) 제시. 램리서치(-2.7%), 마이크론(-2.0%), 샌디스크(-5.6%) 등 동반 하락
TSLA	테슬라	+7.6%	차세대 칩 'AI5' 테이프아웃(설계완료) 소식에 주가 강세. 머스크 CEO는 AI5가 옵티머스와 슈퍼컴퓨터용임을 밝힘, 기존 AI4만으로도 인간 이상의 FSD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
MSFT	마이크로소프트	+4.6%	오픈AI-엔스케일 협상 결렬로 중단된 노르웨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인수 소식에 주가 상승. 엔스케일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230MW 규모시설에 배치될 3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루빈GPU 확보
AVGO	브로드컴	+4.2%	메타(+1.4%)의 AI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기존 맞춤형 AI칩 공급계약 연장 소식에 주가 강세. 자체 설계 칩(MTIA)을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
MS	모건스탠리	+4.5%	1Q26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주식·채권 트레이딩 실적 호조와 WM 부문의 견조한 자금 유입이 실적 견인. 다만 순이자이익(NII) 컨센 하회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에 상승 폭 일부 제한
BAC	뱅크오브아메리카	+1.8%	1Q26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순이자이익(NII) 컨센 상회, 대손충당금 컨센 하회. 시장 우려가 컸던 사모대출 익스포저를 타 대형 은행 대비 낮은 수준($20B)으로 관리 중이라 밝힘